

담배가격 인상하는 진짜 이유는?

“담배가격 인상은 정부 세수를 늘이기 위한 것이다. 흡연율 저하를 위해 가격인상 이외도 방법이 많은데 왜 애연가를 괴롭히는가?” 등의 비판이 많다.

정부는 높은 흡연율을 낮추어야 하는 긴급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흡연의 해악에 대한 교육, 홍보, 공익광고, 담배회사의 판촉과 광고의 규제, 흡연지역의 제한 등의 비가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일년에 흡연율을 1%씩

담배가격을 인상하면 흡연율이 떨어질까?

담배가격을 인상해도 피울 사람은 다 피운다는 것인데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담뱃값이 오르면 끊을 사람도 대단히 많다. 담배는 휘발유와 같은 필수용품이 아니다. 담배는 피우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물품이다.

담뱃값을 인상하면 청소년과 서민층의 흡연율이 가장 크게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다. 담배는 가격 탄력성이 있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3배



##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오해와 이해

[www.nosmokeguide.or.kr](http://www.nosmokeguide.or.kr)

감소시켰다. 앞으로 50년이 지나 남성 성인의 흡연율을 10%대 이하로 낮출 수 있다. 50여 년 동안 국가와 국민이 받을 천문화적인 피해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선진국은 비가격정책과 함께 가격정책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계은행의 연구에 의하면 담배가격을 10% 인상하면 선진국에서는 4%, 가난한 나라는 8%까지 감소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담배 가격을 높이면 높일수록 흡연율은 감소된다. 이에 국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는 범위에서 가급적 높게 책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가격정책 뿐만 아니라 가격정책도 아울러 시행해야 한다.

의 민감도를 나타낸다.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흡연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담배 가격의 인상은 이들에게 담배를 끊을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일시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 얼마 후부터 서서히 다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완전히 회복되진 않는다. 이주일씨 사망과 함께 건강증진 기금 150원이 추가되었을 때 흡연율이 14.8%까지 하강했고 3개월 후에 9.6%로 떨어진 후 60.5%로 고정 안정되었다. 150원은 당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가격(1,300원)으로 약 12% 인상한 것이다. **PPFK**